

7. 뾰다리 밟기

'뾰다리'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라고 하며, 이 '뾰다리밟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으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려 고인왕이 흉건적의 침입을 받아 왕후와 공주를 거느리고 안동지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마침 앞에 개우렁 있어 건너갈 수가 없었다. 이 때에 부녀자들이 나서서 인교(人橋)를 놓아서 왕의 일행을 건너가게 하였고, 이것이 후에 '뾰다리 밟기'라는 민속놀이로 발전하였다 한다.

'뾰다리 밟기'는 대개 정월 대보름 달밤에 가장 성대하게 행하였고, 이 놀이를 하는 장소에는 남자들이 갈 수 없는 금남(禁男)의 구역이었다. 부녀자들이 모두 일렬로 늘어서서 허리를 굽힌 뒤 앞 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고 구개를 앞 사람의 궁둥이에 대고 왼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미리 선발하여 치장을 한 동자(童子)와 공주(公主)가 노래에 맞추어 등 위를 굽히게 한다. 공주가 자기 등을 밟고 지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혀서 열이 그치지 않게 한다.

경우에 따라 뾰다리 패는 여러개가 있어 서로 만나기도 하고 길도 비켜 주면서 밤이 늦도록 즐긴다.

이 행렬의 맨 앞에는 40~50대 이상의 노부인이 서고 그 다음에는 30~40대의 장년 부인이 서고 그 뒤에는 허리를 굽힌 열(列)이 계속되어 동자(童子)와 공주(公主)는 등뒤에서 걸으며 그 뒤에는 젊은 부인과 처녀패들이 따른다.

뾰다리 밟기는 최근에 우리 고장 여학교에서 민속놀이로 재현되고 있다.

8. 강강술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민속놀이로서 중요문화재 제 8호로 지정되었다. 주로 한가위 밤에 즐기는 놀이인데 정월대보름 달밤이나 기타 어느 계절이든지 달밤이면 수시로 즐길 수 있는 집단 놀이이다.

이 강강수월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李舜臣)장군이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의병술(擬兵術)으로써 강강수월래 놀이를 이용했다고 하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널리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강강수월래를 한자로는 강(強)수월래(水越來)로 취음(取音)하여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온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놀이 방법은 많은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지어 돌아가면서 노래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노래는 목청이 뛰어난 사람의 선창(先唱)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함창(合唱)으로 받는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의 진양조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점점 빠른 가락인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등으로 변해가며 빠른 동작으로 춤을 춘다. 이렇게 놀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처음 동작부터 놀이를 계속한다.

9. 거북선 해적놀이

거북선 해전놀이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앞세우고 왜선을 섬멸한 해전 승리를 민속놀이로 재구성한 것인데 온양 고등학교가 1982년부터 충청남도 당국으로부터 민속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 매년 1회 실시하는 도내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였으며 이 충무공 탄신 기념일인 4월 28일을 기하여 개최되는 온양문화제에 출연하는 등 그 활동이 뚜렷한 바 있었으나 그 민속놀이 전승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문제와 출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점점 쇠퇴하는 아쉬움이 있다.

온양고등학교가 1983년에 공개하였던 거북선 해전놀이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북선 해전놀이

충청남도지정 아산군 민속시범학교 [온양고등학교]

① 지도교사

교사 : 고희태 김백선 정재학 장세화

② 운영의 취지

충절인의 고장 아산은 선사 문화의 요람지이며 호서의 요충지로서 민족사의 흐름속에 찬

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워온 역사의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국의 성웅 이충무공께서 수려한 이곳 산하 대지의 품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셨으며 국난에 임하여 나라를 구출하시고 겨레의 수호신으로 산화하시어 정겨운 이 고장에 고이 잠들어 계신 성역이기도 합니다.

그후 400여년 우리 아산은 문무경전의 명장과 총절인이 무수히 배출되었으며 무예송상의 기풍과 함께 충무공의 전술과 거북선의 위력에 대한 신화적인 향토민담이 형성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 고장 특유의 향토 민속을 발굴 재현시켜 전통 문화를 선양하고 자주적 정신 문화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여 충무공의 호국의지를 주제로 하는 민속놀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였으니 이를 거북선 해전놀이라 하였습니다.

③ 거북선해전놀이 실연내용

구분	장 면		등장인원 및 동원 장비	활동 내용
I	강강수월래		무용단 80명 ※여자한복 80벌	강강수월래 악곡에 맞추어 원무 실시후 퇴장(온양여자고등학교 협찬)
II	거북선의 해전승리	1) 왜선 침략	왜수군지휘관 왜수군장수 왜수군 ※왜선 6척	외선의 침략에 대응하여 이순신장군의 거북선 함대가 즉각 출동하여 왜선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후에 퇴장한다.
		2)거북선 함대의 출동	이순신 수군장 수군군관 수군	
3) 해전승리	※거북선 1척 ※대장선 1척 ※군 선 2척			

Ⅲ	승리의 축제	1)농악놀이 2)검무 3)군무	농악대 ※농악기 검무하는 무사 ※무검, 무복 남녀군중 ※남녀한복	우리 수군의 대승을 경축하기 위하여 농악대의 등장과 검무하는 무사 및 환호하는 군중들이 함께 어울려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이룬다.
---	--------	------------------------	--	---

④ 추 천 사

이 충무공의 얼을 받들어 모신 성역의 고장에서 충무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온양고등학교의 거북선 해전놀이는 그 역사적 의의와 향토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민속활동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충사 관리소장 이 한 흥》